20161225-1129-_2012528 -90216 16. 12. 23. 9:46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16년 12월 25일(주일) 제1129호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은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은 크리스마스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이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성탄을 축하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풍성한 행사가 이어진다. 서빙고와 양재는 오전 6시 50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 부천은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 7시, 남양주와 평택은 오전 9시와 11시 30분, 인천은 오전 9시와 11시 30분, 오후 2시, 양지는 오전 11시에 성탄축하예배를 드린다. 수원, 대전, 강동은 주일예배와 동일하게 드린다.

특순도 풍성하다.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평택은 칸타타, 부천은 오후 7시에 차세대 뮤지컬 '왕을 따르는 사람들', 수원은 오후 7시 전도집회 '빈 방 있습니까?', 남양주와 인천은 차세대 발표회를 한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어제는 CGNTV가 제작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상영됐다. 캠퍼스, 공동체별로 영화를 시청했다. 김병순 장로(CMN)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가슴이 먹먹해졌다"면서 "서서평 선교사에게 큰 빚을 졌다"고 했고, 이기원 목사(목회기획)는 "성공보다 섬김의 삶을 살다 간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서빙고는 21일 '2016 성탄콘서트'를 열었고, 남양주는 어제(24일) 인도와 네팔에서 온 이주민들을 초청해 '온누리미션 성탄예배'를 드렸다. 강동은 어제(24일) 나비쇼핑몰 1층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전교인 전도공연'을 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경배와 찬양, 성탄절 거리행진 및 큰잔치

오늘 오후 4시 시청광장서 출발

경배와 찬양은 '2016 한국 교회 성탄절 거리행진 및 큰잔치'를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한다.

시청 앞 광장에 모여 종로를 거쳐 대학로, 방배동, 서빙고동 일대를 행진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눌 예정이다.

2017 선교헌금 작정 행사

1월 1일과 8일, 자동이체나 헌금봉투 선택

1월 1일과 8일 '2017년 선교헌금 작정 행사'가 실시된다. 이날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중보기도와 재능기부 후원도 할 수 있다.

선교헌금은 자동이체(CMS)나 헌금봉투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올해 처음으로 자동이체 방식을 선택한 성도는 '신규 작정란'에 기입하고, 자동이체를 하던 성도는 자동으로 연장된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작정란'에 해당부분을 작성하면 된다. 소속 캠퍼스, 성명,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및 생년월일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 작정금액은 '금액란'에 체크하고,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에도 표시해야 한다.

헌금봉투 방식을 선택한 성도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정금액을 적고, 선교헌금 봉투를 수령할 캠퍼스도 선택해야 한다. 헌금봉투 방식은 CMS와 달리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연장을 원하는 성도들은 다시 작성해야 한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는 "선교헌금 작정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힘을 보태 달라"면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새해 첫 주와 둘째 주일에 선교헌금을 봉헌하고 있다.

문의: 02-3215-3616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송구영신예배 및 신년예배 일정

송구영신예배와 신년예배 일정이 정해졌다. 송구영신예배는 12월 31일 서빙고, 양재, 오후 7시, 오후 9시, 오후 11시, 부천 9시, 11시 30분, 수원 7시, 9시, 인천, 강동, 평택 9시, 대전, 남양주, 양지 11시에 드린다.

신년예배(1월 1일)는 각 캠퍼스별 주일예배로 드린다.

날짜	캠퍼스	시간
12월 31일	서빙고	오후 7시, 9시, 11시
	양재	
	부천	오후 9시, 11시 30분
	수원	오후 7시, 9시
	인천	오후 9시
	강동	
	평택	
	대전	오후 11시
	남양주	
	양지	

평택 온누리교회 창립 11주년

오늘 오전 11시 30분 감사예배

오늘은 평택 온누리교회 창립 11주년이다. 오전 11시 30분 교회창립 감사예배를 드린다. 3부 예배(14시 30분)에서는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상영한다. 평택 온누리교회는 2005년 12월 25일 창립됐다. 성도 50명으로 창립한 평택 온누리교회는 현재 500여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경기도 남부지역 복음화와 이주민사역에 앞장서고 있다.

기획_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 4-5면 선교_ 2000선교본부, 선교사 간증집 발간 7면 특집_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8-9면

20161225-1129-_2012528 -90216 16. 12. 23. 9:46 Page 2

묵상하는 목수를 찾아서 11 노래하는 마리아 김영미 권사

“음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줄”



거룩한 음악가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

묵상하는 목수를 만났다. 일터에서도 성공적으로 일하고, 신앙생활도 열심인 진짜 묵상하는 목수 말이다. 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번에는 노래하는 마리아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가 그 주인공이다.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줄이라며 무대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녀를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아담한 체구에 조용하고 나긋한 말투까지 참 곱고 예쁘다. 이 여린 여자가 어떻게 무대에만 오르면 불을 뿜는지 모르겠다. 힘 있고, 강렬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녀가 올해 62세라고 하면 누가 믿을까. 20대 청춘들보다 우렁찬 목소리를 자랑하는 그녀를 사람들은 한국의 프리마돈나라고 부른다. 동양의 마리아 칼라스, 세계적인 소프라노라는 칭호도 절대 어색하지 않다.

지난 21일 연말 콘서트와 자선음악회 등으로 한창 바쁜 그녀를 만났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꽃향기가 났다. 온통 하나님이야기 뿐이었다. “음악과 신앙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녀가 존경스럽고, 부럽고, 닮고 싶었다.

그녀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4대째 신앙이 이어져 오는 가문이다. 증조할아버지가 아현감리교회를 세웠고, 할머니와 어머니 모두 권사 직분을 받았다. 어릴 적부터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에 다녔다. 그녀에게 교회는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였다. 교회가 익숙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그 후다.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청년 때였다. 이탈리아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커리어를 쌓고 있을 때였다.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붙잡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엄마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며 서원했어요. 나에게 노래하는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생을 살겠다고요.”

우울증과의 사투 그리고 승리

그녀의 음악인생을 겉만 보면 탄탄대로처럼 보인다. 세계 콩쿠르대회 입상, 유명 오페라 주연, 세계 3대 테너 중 하나인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극찬을 받고, 세계적인 무대를 휩쓸었기 때문이다.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는 기나긴 시간을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다.

“28살, 한창 꽃다운 나이에 큰 좌절을 겪었어요. 파바로티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오페라 ‘사랑의 묘약’과 ‘라보엠’에 동시 캐스팅이 됐는데 라보엠 주인공 역이 일본 가수에게 돌아간 거에요.”

국가적인 지원, 대기업 스폰서, 흥행에 목숨을 건 오페라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벌어진 일이다. 1등을 하고도 주인공 역을 빼앗기는 설움을 겪고 나서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서러워서 울고 있는 저에게 파바로티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킴, 너처럼 잘하는 애는 없어. 내가 언젠가 너와 오페라 라보엠을 하고 싶다.’ 그 말이 어찌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파바로티와 사랑의 묘약 오페라를 같이 하면서 많이 친해지고,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 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라보엠을 같이 못한 게 참 아쉬워요.”

우울증이 인생의 고비마다 그녀를 괴롭혔다. 고질병이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접근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마다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2000년이었다. 그녀의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던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다. 어머니 소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LA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또 다시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살던 집이 3층이었는데, 꼭대기 층이 유리 지붕으로 되어 있어 하늘이 보이는 구조였다. 그 유리방에서 그녀는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 우울증, 인생의 덧없음을 곱씹으며 괴로워했다. 유리 천장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리쳤다.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바라봐 주세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영미야, 네가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만홀히 여겼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허우적댈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격으로 까무러쳤다. 대성통곡하며 회개했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섬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100% 믿지 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허우대는 멀쩡하나 영적으로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위해 장애인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걸려왔다. 조이장애선교센터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주택마련 기금을 모금하는 행사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두려움, 실망감,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 기도의 힘이었다.

그녀는 어딜 가든지 자신의 경험담을 간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한다. 그래서일까. 우울증에 걸려 자존감을 잃고 밑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녀의 노래와 간증은 더할 나위 없는 치료제가 되고 있다.

“한번은 미국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펀드를 모집하는 공연에 초청을 받았어요. 노래를 부르고 내려왔는데 어떤 젊은 자매가 내 손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우울증에 시달려서 죽으려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데 제 간증을 듣고 살아날 것 같다고, 자기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반드시 고쳐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무대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무렵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러브소나타를 같이 섬겨주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어요.”

그때는 러브소나타 무대에 10년 동안이나 설 줄은 상상도 못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 시간이 벌써 10년이다. 신기한 건 10년 동안 한 번도 러브소나타와 다른 일정이 겹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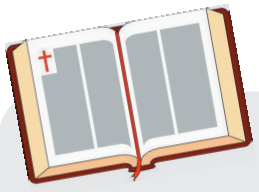
남들은 그녀에게 이룰 만큼 이뤘다고 말할 수 있다. 음악가들이 동경하는 콩쿠르대회에서 입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고, 유명 오페라 무대에도 계속 서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덧 연륜이 묻어나는 나이도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무대라도 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연습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겨야 노래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노래하는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저는 거룩한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저에게 생명줄 같은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녀는 무대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는다. 자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기도하고 순종한다. 매년 크리스마스에 제자들과 함께 불우이웃을 돕는 음악회를 여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녀는 “찬양하지 않는 음악 세계는 무의미할 뿐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편해서 못 산다”고 단언했다. 그녀의 올해 마지막 찬양을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에서 들을 수 있다.

이 시대 요셉을 추천 받습니다
문의: 02-3215-3196
메일: khj@onnuri.org

20161225-1129-_2012528 -90216 16. 12. 23. 9:46 Page 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이사야 11:1~10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영을 받고, 세상에서 일하면 세상이 주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 오심은 역사 속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후에 훌륭한 삶을 사셔서 메시아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수많은 예언자들과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신 분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역사만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 눈에 보이는 공간을 뛰어넘는 실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역사를 뚫고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주의 일부가 되시고, 연약한 한 아이가 되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두려움, 떨림, 놀라움,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루터기에 싹이 나고 줄기가 돋아나고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래를 조금만 빨리 예측하면 남보다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현재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할 뿐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적 상황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메시아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절망적일 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다윗왕국이 완전히 몰락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역사가 단절된 상황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시되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이뤄질 희망과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해야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겸손해집니다. 역사의 실패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메시아 예언이 집중된 말씀들은 이스라엘 역사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주어졌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동정녀에게서 잉태되는 아기로 오셔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태어난 한 아이, 연약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장차 태어날 이가 바로 민족들의 깃발이 되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1절).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왜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왕국이 몰락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찬란했던 다윗왕국이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다윗처럼 잘 알려진 영웅으로의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새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듯이 메시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에서 '줄기'의 원어는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는 나무의 몸통과 가지가 잘려나가고 남은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멸망 가운데 처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통마저 잘려나간 나무의 처참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역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루터기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에 싹이 나고, 새로운 줄기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몸통까지 잘려나간 나무를 보면서 소망이 없다거나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하고, 가지를 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역사적 상황만 보면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어렵습니다. 들리는 대로 믿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유념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역사적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루터기에서 싹을 낼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을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현실을 기초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는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싹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왕국이 몰락함으로 이새의 가문이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상황처럼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로부터 태어난 아들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2절).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신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머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구약에서도 부분적으로 임해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임했고, 사울에게도 임했고, 다윗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머문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영이 머무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임을 알라' 고 일러 주셨습니다"(요 1:32~33).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머무시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 용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메시아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통찰의 영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른 때, 바른 것, 바른 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와 통찰입니다. 두 번째는 모략과 용기의 영입니다. 바른 것을 분별하고 난 다음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견고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통찰이 있어도 용기가 없다면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기가 충만한 '용기의 영'이셨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해도 갈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용기 있게 걸어가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셨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에게 머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지혜의 영이요, 용기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성령이 그분에게 머무시는 분이요,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셔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 여호와의 영이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머무시는 그분의 통치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람들과 환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심 '공의, 정직, 신실함'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의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 띠를 삼을 것이다"(3~5절).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신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영적인 지혜와 용기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충만합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 세상에 끌려가고 상황에 이끌려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13면에 계속〉

20161225-1129-_2012528 -90216 16. 12. 23. 9:46 Page 4

기획_ 오늘은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가장 높은 분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처럼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 섬기고, 돌보는 것이 성탄의 의미

오늘은 크리스마스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나신 최고로 기쁜 날이다. 그런데 요즘 이상하다. 크리스마스가 쓸쓸하게 느껴진다. 미국에서는 “Merry Christmas” 대신 “Happy Holidays”로 인사가 바뀌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어디서든 들을 수 있었던 캐럴도 사라진지 오래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캐럴을 불러주던 아름다운 전통은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인 크리스마스가 퇴색되고, 평가절하되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 교회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이다.

/ 정현주, 김영선 기자



소망교도소 재소자들을 축복하는 새사람사역팀.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와 제자들이 탈북자들을 위한 크리스마스콘서트를 열었다.

여기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작은예수들이 있다.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며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재소자, 미혼모, 탈북자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그 현장에 동행했다.

교도소에서 벌어진 천국잔치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졌다. 작은예수들이 예수가 탄생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고 재소자들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새사람사역팀과 장로합창단이 재소자들을 위한 ‘2016 소망 성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민영교도소이지만 재소자 대부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새사람사역팀 권영석 장로는 믿지 않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문화행사를 떠올렸다. 백 마디 설교보다 감동을 주는 찬양 한 곡이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 예상은 적중했다. 2016 소망 성탄 페스티벌이 열린 소망교도소 대강당이 재소자들로 가득 찼다. 계속 보조의자를 깔아야 할 정도였다.

드디어 장로합창단이 등장했다. 동요, 가곡, 찬양 등 다양한 곡들을 합창하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전했다. 여기저기서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장로합창단의 공연이 끝나갈 즈음 산타가 등장했다. 빨간 고깔모자를 쓰고, 양손에는 선물꾸러미를 들고 있는 그들은 새사람사역팀원들이다. 재소자들의 손을 잡고, 포옹해주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다. 재소자들의 두 손에는 새사람사역팀이 준 선물이, 마음에는 장로합창단이 전한 복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문혜란 권사(특별한초대공동체)가 눈물을 터뜨렸다. 문 권사는 재소자들만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문 권사는 암 투병을 하면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았다.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고 싶어 시작한 사역이 바로 새사람사역팀이다. 매주 여주 소망교도소를 오가는 길이 힘들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오히려 설레는 일이라고 했다.

“마치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레요.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아들을 떼놓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요.”

장로합창단 이태열 장로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교도소 방문이 난생 처음이라는 이 장로는 이곳이야말로 예수님이 있어야 할 가장 낮은 곳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흔한 공연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껏 공연한 곳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재소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탈북자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탈북자가 3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과연 북한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일까. 탈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허원희 목사(한누리사역 담당)는 “북한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고 했다.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했다. 탈북자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곧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와 제자들, 온누리 탁구선교팀(Onnuri Ping-pong Mission), 강남B공동체가 탈북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렸다.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는 지난 14일 제자들과 함께 ‘2016 성탄 Love 멜로디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서 봉헌한 헌금은 탈북자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김 권사의 제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더욱 뜻깊었다. 제자들에게는 나눔과 기부의 의미를, 탈북자들에게는 클래식 문화와 예수님의 사랑을 선사하는 일석이조였다. 이날 콘서트에 온 이훈 형제의 감회가 남달랐다. 그는 한국에 온지 12년 됐는데 클래식 콘서트를 이날 처음 봤다.

“공연을 보는 내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을 ‘반쪽 가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서 통일된 가나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강남B공동체와 온누리 탁구선교팀은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성탄의 기쁜 소식도 전하는 기가 막힌 행사를 기획했다. ‘제1회 통일탁구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스포츠는 이념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에 전도와 선교를 접목하면 탁월한 효과가 있다.

임정열 장로(고양은평공동체)는 “좋아하는 탁구도 치고, 탈북민들과 친구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했고, 고길범 집사(강남B공동체)는 “탈북민들과 함께 탁구를 치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된다”며 흐뭇해했다.

미혼모에게도 전해진 기쁜 소식

대한민국에서 미혼모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 경제난, 미혼모라는 이유로 괴롭힘이나 모욕을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가족도, 사회도 외면한 그녀들에게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미혼모들을 섬기는 ‘맘앤맘스사역팀’이 발벗고 나섰다.

지난 17일,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미혼모를 위한 특별한 음악회 ‘내림과 올림’이 개최되었다. 맘앤맘스사역팀이 구세군 두리홈·두리마을·두리빌리지, 동방아동복지회 세롱이·세남이네집, 꿈나무공동생활가정, 성산모자원 해오름빌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혼모 130명을 초청했다. 그녀들을 위한 음악회뿐만 아니라 맛있는 식사도 대접했다.

오랜만에 미혼모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이렇게 근사한 대접을 받은 게 얼마만이냐며 감격하기도 했다.

박봉자 자매(가명)는 “연말이나 크리스마스는 연인들만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도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고, 김은지 자매(가명)는 “연말이 다가오면 괜히 움츠러들어서 집밖에도 잘 나가지 않았는데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울먹였다.

미혼모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다. 예수를 만난 미혼모들에게서 더 이상 움츠러든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황재명 목사가 ‘내림과 올림’을 주제로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낮은 음과 높은 음이 어울려서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어 내듯이 우리의 인생도 낮아지고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큰 희망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찬우(가명) 엄마는 “오늘 정말 큰 위로를 받았다”면서 “맘앤맘스사역팀과 온누리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은경이(가명) 엄마는 “힘을 내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면서 “꼭 교회에 가고 싶다”고 고백했다.

20161225-1129-_2012528 -90216 16. 12. 23. 9:46 Page 5

특별기고

크리스마스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크리스마스가 주인공 없는 잔치로 전락한 것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파티도 있고, 콘서트와 각종 공연, 선물이 넘치는데 정작 주인공이 없다. 성탄절이 소비향락 산업의 호기로 전락해버린 듯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인공 없는 잔치를 더 이상 열지말자는 사회적 분위기다. 미국에서는 종교적 차별을 막기 위해 '크리스마스(Christmas)'라는 표현이 금지되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려다가도 목구멍에서 막힌다. 대신 "행복한 휴일(Happy Holiday)"이란 말을 뱉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이것은 종교적 차별 금지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료 문제 때문이다. 상업주의가 성자(聖子)의 생일을 장사판으로 만들뿐 아니라 축하곡도 금지시켰으니 그야말로 완벽한 주인공 행세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성탄 없다면 십자가도, 천국도 없다
영원한 절대자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구원도 사라지고, 천국문도 닫히리라."

절대자의 절대구원의 서막

크리스마스는 본래 그리스도(Christ)에게 경배(Mass)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하고 어두운 죄악의 땅에 오신 것에 감사하는 날이다. 그런데 아는가? 그리스도 오신 날, 왕도 제사장도 경배하지 않았다. 이방인인 동방박사들과 일반인인 목자들만 경배했다. 2천 년 전 그날처럼, 오늘날에도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날 태어난 그리스도는 그냥 아기가 아니다. 이사야가 성자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한대로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사 7:14)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사 9:6)이다. 선지자가 아무리 상상력이 좋아도 어떻게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크리스마스는 절대자의 절대구원의 서막을 노래하는 날이다. 그리스도는 일개 선인이나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바로 그 기름부음 받은 자(The Messiah)'라는 뜻이다. 한 사람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다. 역사상 유일무이한 단 한 분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다. 크리스마스는 그분을 경배함이다. 동방박사의 세 가지 선물(황금, 유향, 몰약)이 그 의미를 보여준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요, 유향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드리는 향기요, 몰약은 선지자를 임명할 때 쓰이는 관유의 주재료다. 오늘 태어난 아기는 만왕의 왕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요, 구원의 유일한 진리의 선포자이시다. 우리는 여러 성인들 중에 한 분의 탄신을 기념하려는 것이 아니다. 유일한 절대자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으로 오신 성자를 찬양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종교적 차별금지'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상대주의에서 발전한 다원주의는 절대주의를 표방하는 기독교를 거부한다. 당연히 절대자를 표방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조차 싫어하기 마련이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는 공교육에서나 공공장소에서 기독교적 신앙 표현을 금지시키고 있다. 다만 모순적인 문제는 불교나 무슬림 같은 타종교에는 관용을 베풀면서 유독 기독교에만 무관용 원칙으로 나온다는 점이다. 결국 라비 재커라이어스가 책 〈오직 예수〉에서 지적한대로, 기독교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해보라. 석가탄신일에 거리에 온통 연등을 단다고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성탄절에는 광장에 십자가나 트리만 세우려 해도 거세게 반대한다.

상대주의 vs 절대주의

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거부감을 느낄까?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온전한 거울이 되지 못하고, 일그러진 거울이 된 것이 실제적인 문제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상적인 문제가 있다. 상대주의는 절대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주의는 정직하지 않다. 상대주의면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서 보아야 정직하다. 그러면 자신도 틀릴 수 있고 절대주의도 맞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상대주의는 모순되게도 자신을 절대시하고 절대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상대주의의 사상적 모순이다. 여기에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있다. 가령, 15세기 콜럼버스를 통해 서구에 담뱃잎이 소개된 이후로 담배는 20세기에 대량생산 시스템과 마케팅을 통해 전 세계에 확산되었고, 오늘날에는 일일 150억 개비의 담배가 11억 명의 흡연자들에게 팔리고 있다. 그러나 흡연을 즐기고 권장하던 사회에서 점점 금연을 장려하고, 담배회사에 법적 책임까지 묻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기준은 변한다. 인간의 기준은 절대적일 수 없다. 상대주의는 자신을 상대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

크리스마스를 거부하는 상대주의는 정직하지 않다. 그러나 절대주의는 정직하다. 절대자의 존재(하나님)를 긍정하고, 절대 진리(성경)를 믿으며, 절대적 구원(예수 그리스도)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주의다. 절대주의는 다원주의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반면, 다원주의 사회는 무례한 기독교라고 손가락질한다. 기독교의 절대주의에 기초한 배타성을 편협함이라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다.

첫째, 배타성은 '편협함'을 의미할 때와 '순수함'을 의미할 때의 두 가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조금 소심하다고 친구들이 따돌린다면, 우리는 그런 배타적 태도를 편협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옆집 아저씨나 윗집 아저씨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우리 아빠에게만 아버지라 부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편협함이라고 하지 않는다.

둘째, 진리와 구원의 문제는 비진리로 인한 멸망의 문제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다원주의는 비진리나 멸망은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가 다를 뿐이라고 주장한다. 가령, 온 인류가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정직한 의사라면 "당신은 감염되었다.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할 것이다. 치료제가 있다면 기쁘게 제시할 것이다. 그런데 의사가 "당신은 괜찮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관용일까 아니면 친절일까? 무엇이 무례한 것일까? 전 인류가 죄에 감염되었으며 영원히 영혼이 죽을 것이라는 진단이 무례한 것일까? 의사라면 정직해야 한다. 환자도 정직해야 한다. 환자는 대부분 자각증상이 있는 법이다. 머릿속의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그러면 환자도 아는 것을 의사가 부인하겠는가? 그냥 "괜찮아, 괜찮을 거야"하며 병실에서 파티를 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사랑이고 관용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러한 인본주의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례할 뿐더러 치명적인 사상이다.

2천 년 전 그날처럼 세상은 아기 예수를 받아들일 방이 없다. '빈 방 없음(No Vacancy)' 팻말을 걸어두고 있다. 아기 예수는 가정집에도, 여관방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짐승의 구유에 뉘어졌다.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 아니던가(마 1:21).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는 짐승의 구유는커녕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질 위기에 있다. 그러나 초대받지도 환영받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아들은 오시었다. 그 길 외에는 우리를 건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떠나실 때도 더 이상 이 땅에 발 디딜 곳이 없어 십자가 위 공중에 매달리셨다. 누구를 위해서인가? 그분을 거부하던 나와 당신을 위해서다. 성탄이 없다면 십자가도, 천국도 없다. 영원한 절대자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상대성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상태는 존중되겠지만, 구원도 사라지고 천국문도 닫히리라. 대림절이 끝나고 오늘은 성탄일이다. 대림절은 구세주의 초림에 감사하고 재림을 사모하는 절기다. 오늘이 드디어 성탄일인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절체절명의 날에는 다원주의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주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상준 목사
(양재 온누리교회)

20161225-1129-_2012528 -90216 16. 12. 23. 9:47 Page 6

꿀보다 달콤한 '윈터캠프'

대학청년부, 재한몽골학교 가족들과 함께

대학청년부의 겨울은 훈훈하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청년들의 마음만큼이나 따뜻하다. 이번에는 재한몽골학교 학생들을 위한 윈터캠프를 다녀왔다. 지난 10일, 여호수아, J4U, W공동체 소속 청년 34명이 재한몽골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 줬다. 몽골인 41가정과 함께 1박2일 동안 아쿠아리움, 스노우파크, 워터파크 등지를 다니며 구경도 하고, 신나게 놀기도 했다. 난생 처음 본 광경에 몽골인들이 신이 났다.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꿀보다 달콤한 여정에 동행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워터파크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몽골 아이.

몽골인들은 한국을 설렁거스(Solongs)라고 부른다. '무지개 뜨는 나라'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 물의 심판 종결을 약속하셨듯이 몽골인들에게 한국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꿈을 실현시켜 주는 곳으로 여겨져 왔다. 1990년 3월, 한몽수교 체결 이후 몽골에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들이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왔다. 최근 들어 몽골 경제가 악화되면서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몽골인들이 입국하고 있다. 그렇게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3만 1천 253명이나 된다.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만큼 한국생활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만큼 한국생활 적응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몽골에서 온 이주민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불법체류도 증가하고 있다. 생활환경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4~5인 가족이 보증금 없이 월세 25~30만 원짜리 반지하나 옥탑방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자는 이삿짐센터, 여자는 청소나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부모가 맞벌이 하다 보니 자녀들은 혼자 있을 때가 많다.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고 어렵다. 윈터캠프에서 만난 쫄자야의 가정도 사정이 비슷했다.

"한국에 온 뒤로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에요."

쫄자야는 2004년 멋진 한국생활을 꿈꾸며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그런데 첫 번째 관문부터 쉽지 않았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6개월 동안 한국어만 열심히 익히고 나서 학교에 입학했다. 한국에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 난관은 계속 됐다. 이번에는 돈이 문제였다. 한 달 동안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200만원이었다. 그 돈으로 월세 내고, 학비 내고, 생활비를 감당했다. 그들에게는 놀러가는 것조차 사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들에게 꿈같은 일이 벌어졌다. 12년 만에 온 가족이 여행을 온 것이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주최한 윈터캠프가 바로 그 여행이다.



▲ 편지 낭독 후 모자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은 없었다

대학청년부는 한국에서 각박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몽골인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첫 번째 코스는 아쿠아리움이었다. 들어서자마자 몽골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기 있잖아. 여기."

투명 해파리를 가리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있었다. 이동하는 곳마다 핸드폰으로 사진 찍기에 바빴다. 행복한 순간을 한 순간도 놓치기 싫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애처롭기도 했다.

이번에는 스노우파크를 갔다. 빙판 위를 걸으면서 온 가족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부녀, 모자, 자매가 서로를 의지하며 한 발자국씩 내딛었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가족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았는지 모른다. 그들이 힘든 타국살이를 견디는 힘도 바로 여기에서 나올 것이다. 그들에게 가족은 삶의 활력소이자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분명했다.

워터파크는 몽골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었다. 물 만난 고기처럼 정말 신나게 헤엄쳤다. 가족과 함께하기에 더욱 즐거워보였다. 자녀는 아빠가 끌어주는 튜브를 타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고, 엄마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뭉크자이 가족도 이 모든 경험이 처음이었다. 그들은 2012년 한국에 왔다. 한국에 온지 2년 만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난관에 부딪혔다.

"큰아들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몽골에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몽골에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엄청난 병원비가 들어도 아들을 꼭 치료하고 싶었다. 아들만 건강하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 지금도 한 달에 두 번씩 치료를 받고 있다. 투병하는 아들이나 간호하는 부모나 몹시 지쳐 있었다. 그들에게 윈터캠프는 회복 그 자체였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은 없었다.

"윈터캠프에서 보낸 모든 시간이 기억에 남아요. 절대 잊지 못할 거에요."

윈터캠프의 대미는 자녀에게 쓴 편지낭독이 장식했다. 부모들의 손에는 자녀들에게 쓴 편지가 들려있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을 담아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동안 함께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그래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읽는 부모들과 자녀들 모두 눈물을 흘렸다. 그냥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소리 내 울었다. 서로를 꽉 끌어안아주며 하염없이 우는 모습이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도 때렸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섬김과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를 섬겨주신 청년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윈터캠프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다. 한국에서 관광학을 공부하고 있는 빠뜨 호이크는 "나중에 관광회사를 차리면 한국에 여행오는 몽골인들에게 가장 먼저 윈터캠프를 소개해 줄 것"이라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이 귀한 열매들은 청년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몽골인들을 내 가족을 돌보듯 챙겼다. 혹여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끝까지 함께했다. 그 과정이 힘들 법한데 누구 하나 지친 구석이 없었다. 한시도 미소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없었다.

윈터캠프 스태프 외부놀이 팀장 문혜경 자매(J4U 공동체)는 "몽골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것을 보는데 마치 천국을 보는 것 같았다"면서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천국잔치에 초대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온누리교회 청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윈터캠프는 우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주었습니다. 늘 생활비 버느라 바빠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화 할 시간조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가족이 이번 캠프에서 따뜻하게 대화하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는 딸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윈터캠프에서 진행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스노우파크와 워터파크에서 아이들과 실컷 놀고,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은 것이 지금도 아른거립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아리옹에르덴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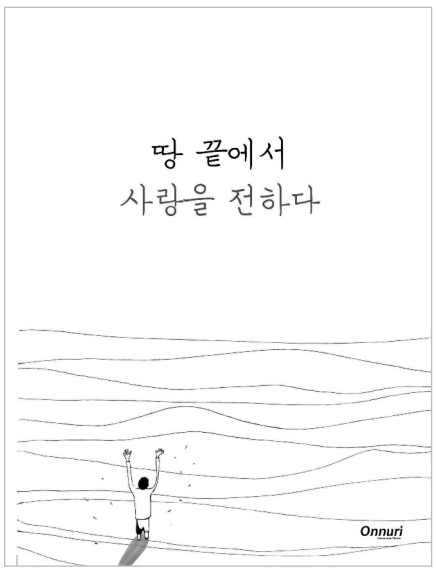
20161225-1129-_2012528 -90216 16. 12. 23. 9:47 Page 7

2017 선교헌금 작정 행사를 앞두고

1.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민 선교'
2. 선교사 케어 '간증집 발간'

"땅 끝에서 사랑을 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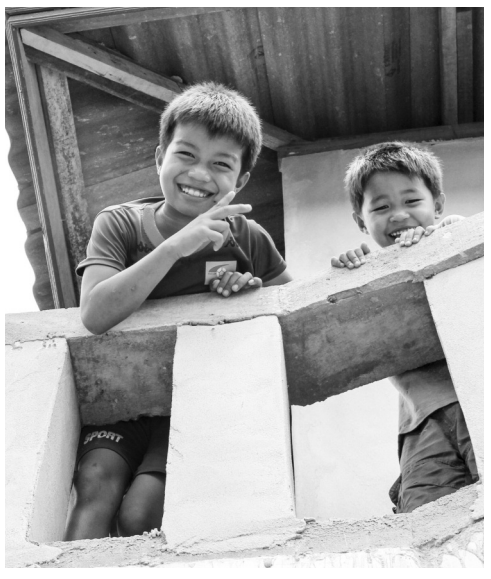
2000선교 본부, 선교사 간증집 발간



▲ 26일 발간되는 선교사 간증집.



▲ 예배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



▲ 남아시아 B국 아이들.

간증집 〈땅 끝에서 사랑을 전하다〉가 26일 발간된다. 2000선교본부가 선교현장에 쏟아진 은혜들을 모으고 모아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 선교현장의 은혜를 전 세계 성도들과 나누고,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땅 끝에서 사랑을 전하다〉에는 가슴 시린 간증들이 가득하다. 폐암 투병 중에도 선교의 끈을 놓지 않은 선교사, 무슬림 여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선교사, 전도집회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헌신한 선교사, 난민들의 친구가 되어 준 선교사 등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뜨거운 사랑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기쁨과 감격과 감동의 눈물

2009~2010년 A국의 기독교 박해가 더욱 심해졌다. 많은 종교인들이 난민이 되어 A국으로 넘어왔다. 그 중에서 A라는 친구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는 시아 무슬림에 적극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었다. 시아 무슬림 지도자의 순교를 기념하는 날에 행해지는 '가메자니'라는 의식을 치를 때 늘 앞장서는 친구였다. '가메자니'는 자신의 몸에 긴 칼로 상처를 내고, 머리와 등을 치면서 피를 흘리는 의식이다. 죽은 선지자의 고통에 동참하는 시아 무슬림의 의식이다. A의 고백에 따르면 처음 1시간은 그렇게 아프다고 한다. 아무리 아파도 아픈 척은 못하고 한 시간 정도 참고 또 참으면 어떤 기운이 자신을 감싸며 고통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 정도로 헌신했던 A가 어느 날 친한 친구 R에게 신약성경을 읽어볼 것을 제안 받았다.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 이슬람학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신약읽기는 필수 코스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슬람교의 의도와 달리 이 신약성경이 A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었다. 기독교의 신약성경을 읽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속고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다. 배교자는 당연히 죽여야 한다고 여기는 규범대로 A는 심하게 맞았다. 이슬람교 학자의 길을 걸으며 누릴 수 있는 혜택마저 모두 잃었다. 배교자로 낙인까지 찍혀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A의 아버지는 A를 죽이기로 계획했지만 어머니가 A를 몰래 도망치게 했다. 그렇게 A국까지 도망 와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 A국에서도 A는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켰을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다. A국에서는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는 동시에 작은 가정교회도 섬기고 있다.

그의 고난은 끝이 없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난민 신청을 거절해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고 말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일용직, 식당 등 허드렛일뿐이다. A처럼 미래를 알 수 없는 난민신청자들이 정말 많다. 절망을 친구 삼아 지낼 수밖에 없는 이들과 함께 3, 4년을 지내면서 그들과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었다. 선교단체 팀원들은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모은 재정으로 음식을 사서 함께 먹는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 길을 걷다보니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형이 되었구나. 내 인생이 그들과 함께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이런 자리까지 오고, 이런 복을 받은 삶을 누린답니까!"라는 감사의 고백도 흘러나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 그들은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중동의 언어와 문화를 매우 잘 알고 있다. 코란을 외우듯이 성경도 잘 외우고 전도도 잘한다. 의사소통과 리더십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들은 참 탁월한 선교사 지망생이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입술이 이렇게 고백한다.

"주님. 당신의 눈물은 결국 아픔의 눈물을 넘어 기쁨과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었군요."

/ 마이크김 선교사(중동 A국)

복음화를 꿈꾸며

우리 부부의 첫 번째 사역지는 H국 동부에 위치한 S지역이다. 이 마을 원주민인 A종족은 H국의 신분제도에 따르면 천민에 속한다.

나는 선교지로 오기 전부터 차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 그 비전을 따라 이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예배와 성경교실을 열었다. 몇 달이 지나자 1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왔다. 그 아이들과 함께 은혜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사역을 위한 센터를 마련해주셨다. 센터가 세워지고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역이 현지인 사역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영성훈련이었다. 6개 종족에서 온 12명의 차세대들이 장차 크리스천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지도록 돕기 위해 매일 예배드리고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이 아이들이 이곳을 변화시키고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우리 부부가 이 지역으로 선교를 온 이유 중 하나는 G국의 복음화를 위해서다. 불교가 국교인 G국은 H국 동북부에 위치해 있는 조그만 나라다. 가난하지만 행복지수는 세계 1위이다. 그런데 기독교를 배척하는 10대 국가에 들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매우 심한 곳이다. 전도를 하면 바로 감옥에 갈 정도다. 외국인은 무조건 선교사로 생각하고 경계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

G국 복음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국경지역을 다니며 기도했다. 그러던 중에 이 지역 교인 몇 명이 주일마다 강을 건너서 힘들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마을에 교회가 있으면 복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교회 개척을 계획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B마을에 작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온누리교회 집사님 가정의 헌신이 밑거름 되어 'B온누리교회'가 세워졌다. 주일학교가 중심이 되었고, 주중에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했다.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부모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병든 자가 고침 받고, 귀신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이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운지 2년 남짓 지났다. 지금은 교인이 약 40명에 이른다.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국경지역 정글에 L족이라는 종족이 있다. 모든 주민들의 성이 L인 씨족사회이다. 이 마을에도 제법 큰 교회가 있다. 이 마을은 구성원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공동체다. 한 마을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주일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다. 그런데 이 마을교회에는 목회자도 없고, 양육과정도 전혀 없다. 주일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다. 마을 지도자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마을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그가 세례를 받은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 요셉이는 마을의 기대주이다. 요셉이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 이바나바 선교사(남아시아 H국)

20161225-1129-_2012528 -90216 16. 12. 23. 9:47 Page 8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12월 17일 *Sat* 토요일

인생의 참 기쁨 (이영표 집사(스포츠해설가, 전 축구선수))

저는 2013년에 은퇴하고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거리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 여름, 3개월 동안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반복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평소에 교제하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사모님이 한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다음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모두에게 발송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면 이런 방식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성경을 펴고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실수를 통해서 생수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국가대표, 유럽 리그, 멋진 은퇴식 등 축구선수로서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꿈꾸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은퇴 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목표하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느끼더라도 소수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은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19일 *Mon* 월요일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에스겔 37:1~10)

시련이 깊을수록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민감해집니다. 강력한 영적 체험은 강력한 시련의 때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영적 체험은 한결 같이 시련의 때와 위기의 때에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는 현장에서 회복과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체험은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영적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끌어당기시고, 더 큰 확신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에스겔이 본 환상은 가장 큰 환상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아름다운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짜기에 널려진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뼈를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순간 과연 누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도 골짜기의 뼈를 보며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답을 말한 것 같지만 회피하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언제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 대해 예언하라"고 말씀하시고 대언할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른 뼈 위에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살갗을 덮고 생기를 불어 넣는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절망과 죽음의 상태가 희망의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에스겔이 뼈에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살갗을 붙이고,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예언했더니 생기가 마른 뼈 안에 들어갔고 두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영이 임재하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영이 임하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뼈가 마르는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자신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새살이 붙고, 살갗이 붙고, 생기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12월 20일 *Tue* 화요일

자신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다니엘 1:3~17)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 어떤 다스림과 원리로 움직이고 있느냐 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가장 훌륭하게 보여준 모델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을 미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경험한 모든 문화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환경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문화적 폐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문화를 변혁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 중에는 모세 율법에 금지된 음식도 있었고, 바벨론 이방신에게 바쳤던 음식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결단입니다. 다니엘은 결과를 보고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순결하기로 결심을 먼저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뒤의 일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결단을 주목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단 1:9).

9절이 대반전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가 거룩한 결심을 할 때 나타납니다. 거룩한 결단을 할 때 세상적인 환경 속에서도 순결을 지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십니다.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밝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들이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탁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제시하는 지혜와 대안, 제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161225-1129-_2012528 -90216 16. 12. 23. 9:47 Page 9

12월 21일 Wed 수요일

영적습관을 지키십시오 (다니엘 6:10)

다니엘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거룩을 지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때를 16살로 봅니다. 6장에서 다니엘의 나이를 83세로 추정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고, 그 사이 다니엘이 모시는 왕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당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하고 인정받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 땅을 정복하고 120명의 지방장관을 두고 땅을 분할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3명의 총리를 두어 120명의 지방장관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총리 중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가장 신임을 받는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관리들로부터 시기를 받을 정도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관리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갇히는 법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람들은 그의 기도습관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영적 습관은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도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영적습관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은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다니엘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바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리오 왕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본인이 함정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을 사자굴에 넣고 모든 백성들에게 담화문을 내립니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고 전도까지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세계를 선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도전과 위험이 삶과 거룩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타협 없이 거룩을 추구할 때 소금과 빛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월 22일 Thu 목요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호세아 6:1~6)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활동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정치외교의 실패나 강대국의 침략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귐으로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지만 고멜은 호세아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호세아는 그런 아내를 사랑으로 품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치 않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심판 가운데 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호세아가 결혼을 통해 아내와 사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고멜이 언약을 깨뜨렸지만 호세아는 사랑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모르면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돌이키면 구원하시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견고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견고한 사랑은 분노를 이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사랑(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삶에 고난과 징계가 찾아오더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견고하신 사랑을 체험하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면 사랑으로 맞아주십니다. 하나

12월 23일 Fri 금요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요엘 2:12~14)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나요"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설명할 수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세상적인 해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를 읽으면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부터의 구원'입니다. 절박한 상황, 심각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요엘서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두려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시리아 민족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날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심판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역사에 대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심판은 우리 힘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선행으로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믿음이 아니라 자녀를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만큼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삭을 바친 온전한 확신과 헌신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두 번째 차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으로의 구원'입니다. 타 민족의 압제,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지만 진정한 구원은 번성과 회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비로 인도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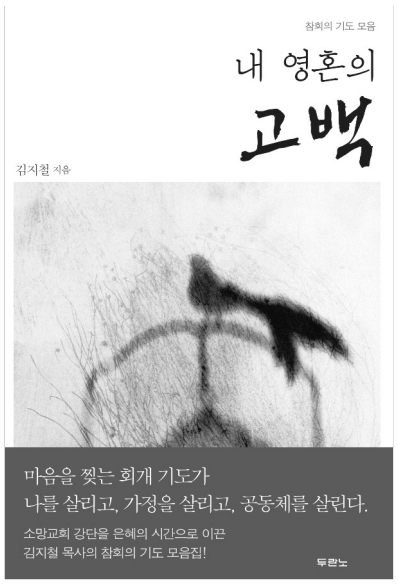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20161225-1129-_2012528 -90216 16. 12. 23. 9:47 Page 1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기도는 복이요, 하나님의 선물



〈내 영혼의 고백: 참회의 기도 모음〉
김지철 저 | 두란노 | 9,000원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다. 온 교회가 새벽에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축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성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번 새벽기도회의 주제는 '돌이키면 살아나리라'이다. 참된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거룩의 회복이 있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는다.

회개와 관련된 책들을 찾다가 너무 좋은 책을 발견하여 기쁜 마음으로 읽고,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이 쓴 〈내 영혼의 고백〉이라는 책이다. 부제에서 밝힌 것처럼 이 책은 참회의 기도 모음집이다. 주일예배 시간에 한 목회자가 성도들과 함께 드렸던 참회의 기도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우리는 늘 회개기도를 한다. 그러나 회개기도는 형식화되기 쉽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거쳐 지나가야 하는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에 소개된 회개의 기도들은 우리 자신의 죄악 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고, 폭넓고 영성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한다.

이 책에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게으른 모습, 불의한 모습, 때로는 아주 오만한 모습들이 기도의 형태로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죄의 은총을 받기 원하는 기도자의 깊은 영성이 배어있다.

"허울뿐인 우리의 기도를 고쳐 주소서.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떼만 쓰면 응답받을 것이라는 짧은 생각을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기보다 내 욕망만 채우려 했던 탐욕스러움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듣게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들 속에 기도자의 맑고 깨끗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 원하는 마음과 열정이 스며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하고 정직한 회개의 기도를 정갈하고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 책에 소개된 41편의 회개 기도문의 주제 또한 무척 다양하다. 의심, 성령, 세상에 대한 무관심, 지도자, 용기, 거룩함, 십자가, 감사, 기다림, 성숙, 분노, 눈물, 죽음, 용기, 부활 등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들이 기도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서 기도를 읽는 것만으로도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유익하고, 바른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 거짓, 탐욕, 부패, 기복신앙, 욕심, 이기심, 편협하고 옹졸한 생각, 악, 변명, 불평, 미움, 어둠, 증오, 비판, 폭력성 등 죄악 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참된 회개와 결단으로 이끈다.

이 책의 백미 중 하나는 각각의 회개 기도문 뒤에 이어지는 짧은 묵상의 글이다. 정갈하고 깊이 있는 기도문도 좋지만 그 기도와 관련된 묵상의 글 한편 한편이 깊은 성찰과 묵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실존과 영혼이 흔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만 생명과 구원과 참된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다."

책 중간 중간에 배치되어 있는 7편의 그림 묵상도 우리의 회개와 성찰을 돕는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세련된 언어가 될 수 있는지 경험했다. 시적이면서도 현학적이지 않고, 심플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기도의 언어를 배울 수 있었다. 우리의 회개가 좀 더 정직하고 깊이 있기를,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이 책은 한 번에 다 읽어도 좋겠지만 하루에 한편씩 기도문을 읽고 실제로 기도한 뒤 묵상의 글을 통해 더 깊은 성찰과 묵상으로 나아가면 유익할 것이다. 또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사순절(재의 수요일~부활절) 기간에 묵상과 기도를 위해 사용해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흥과 회복이 기도로부터 비롯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창규 목사
(온누리상담센터)

새벽에 들으면 더 좋은 찬양 2

내가 주인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2005년 봄, 수원의 한 교회에서 예배학교 강의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날도 어김없이 찬양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주님을 찬양하며 깊은 경배로 들어가고 있었다.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처음 듣는 생소한 곡이 흘러나왔다. 처음 듣는 곡이었지만 주님을 경배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너무도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그 곡이 궁금해서 찬양을 인도하던 전도사님에게 악보를 부탁했다. 그 전도사님에게서 받은 악보는 현장에서 손으로 직접 그린 악보였다. 나는 "전도사님의 곡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런데, 아니란다. "악보가 없어서,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럼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사실 저도 제목을 모릅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가사 첫 줄을 제목으로 적었다. 그 찬양이 바로 '내가 주인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라는 찬양이다.

나는 그 악보를 가지고 돌아와 당시 내가 속해있던 부흥한국과 사랑의교회 대학부가 시작한 '쥬빌리 통일기도회'에서 이 곡을 불렀다. 처음 고백하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나는 이 노래에 하나님께서 기름부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곧 여름이 다가왔고, 총신대학교에서 열린 '예배인도자 컨퍼런스 2005'에서 이 곡을 부르며 예배 인도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2천여 명이 넘는 예배인도자들이 저마다 주님 앞에 자신이 주인삼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현장에서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은 '예배인도자 컨퍼런스 2005 앨범'에 수록되었고, 기독교 방송과 서점을 통해 한국 교회에 보급되었다.

이 곡은 한 작은 교회의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던 형제가 만든 곡이다. 그 형제는 전도사님의 설교에 찔림을 받고 교사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주시는 영감으로 이 노래를 만든 것이다. 그 형제는 전문 작곡가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 곡을 몇 명에게만 나누었다. 그 몇 명 중 한 명이 바로 내가 방문했던 수원의 한 교회에서 예배인도를 하던 전도사님이었다.

이듬해인 2006년,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하나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순결한 노래를 허락하신다. 또한 그 노래를 통해 교회에 메시지를 주신다. '내가 주인삼은' 찬양과 〈내려놓음〉 책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메시지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더럽혀진 한국 교회가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순결을 회복하길 원하셨던 것이다.

나는 2005년 한 해 동안 무수한 곳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예배를 인도하는 은혜를 누렸다. 그러나 몸에 이상이 생겨 왼쪽 귀의 청각을 잃었다. 그로 인해 2006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온누리교회로 인도해 주셨다. 온전한 몸으로 섬기기에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온전하지 못한 자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를 주제로 열리고 있다. 주님은 이 고백을 통해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하신다고 믿는다. 기도로 새벽을 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길 바란다. 내가 주인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민욱 목사
(찬양공동체)

20161225-1129-_2012528 -90216 16. 12. 23. 9:47 Page 11



지난 20일 양재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교회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잊지 못할 선물 '크리스마스 블레싱'

양재, 선교사 자녀, 교회 직원, 결신자 축복

양재 온누리교회가 선교사 자녀, 교회 직원, 전도집회 결신자들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다. 분당B공동체 소속 권사들은 한동대학교에 재학 중인 선교사 자녀(MK)들에게 서울나들이를 시켜줬다. 지난 19일과 20일 선교사 자녀 30명과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왔다. 연말에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하여 심상선 권사(분당B공동체)가 아이디어를 내고, 공동체 리더십들이 함께 섬겼다.

선교사 자녀 김지민 학생(12학번)은 "처음 와본 놀이공원에서 정말 신나게 놀았다"고 했고, 김신균 선생(한동대 대외협력팀)은 "수년째 선교사 자녀들을 섬겨주는 온누리교회 권사님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심상선 권사는 "분당B공동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사 자녀들을 섬길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

지난 20일에는 양재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교회 직원들을 섬겼다. '2016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족예배'를 드리고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한 간사와 직원들을 격려하고, 축복했다. 직원들을 위한 식사와 선물도 마련했다. 보완관리실 직원 이재선 성도는 "예수의 마음으로 직원들을 섬겨주셔서 감사하다"며 "더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했고,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 송행순씨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면서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졌다"고 고백했다.

양재 수요여성예배에서는 지난 10월 열린 전도집회 '가을에 받은 편지'에서 결신한 14명에게 세례를 줬다.

양귀남 성도는 "60년을 돌고 돌아 이제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됐다"면서 "이제부터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고백했고, 심은정 자매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열심히 살고, 가족들도 전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엔젤트리, 1,640개 사연 접수 및 후원자 연결

사회선교부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엔젤트리(Angel tree)가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총 1,640개의 사연이 접수되었고 모두 후원자와 연결되었다. 꼭 필요한 선물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됐다. 접수된 사연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른다.

A형제는 중학교 3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방황을 했다. 지금 A형제는 소년원에 있다. 할아버지(86세) 홀로 집에 남아 계신다. A형제의 할아버지는 난방비가 아까워서 이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를 잘 틀지 않는다. 이 사연을 본 전계림 성도가 A형제의 할아버지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남자내복세트, 수면 양말, 속옷세트를 선물했다.

B형제도 지금 소년원에 있다. B형제는 소년원에 찾아온 엄마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기저기 굳은살이 박혀있고 매우 거칠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의 손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아들의 사연을 본 한보현 성도가 B형제 어머니에게 더 이상 손이 트지 않도록 핸드크림을 선물했다.

엔젤트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CGNTV의 공유, 공감, 공생!

상계동에서 연탄 나눔 행사

CGNTV 임직원들이 지난 20일 노원구 상계동에서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CGNTV 이용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탄 나눔 행사는 '삼공나눔'을 주제로 실시되었다. 삼공나눔은 CGNTV의 핵심가치인 공유, 공감, 공생을 의미한다. 이웃을 섬기고, 나눔과 봉사를 통해 한 영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연탄 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CGNTV의 섬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계획이다.

한편 현재 누적재생수 1천6백만 뷰를 기록중인 CGNTV Korea와 KNOCK 페이스북이 연말 콘서트 '옥상라이뷰(Live+view)'를 연다. 12월 28일 수요일 오후 7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버스킹밴드 '연탄365'의 생생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모두 함께 춤춰요'

26일, 세라핌합창단 정기연주회

세라핌합창단이 내일(26일) 일원동 밀알학교 세라믹팔레스홀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 '모두 함께 춤춰요'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세라핌합창단은 합창, 핸드벨 연주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휘는 홍정표 장로가 하고, 피아노 박아령, 플루트 김정환, 타악기 고동현이 출연할 예정이다. 공연티켓은 2만원이다. 한편 세라핌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 대상이다. 1월 15일 오후 2시 오디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자유곡 1곡을 준비해 오면 된다. 세라핌합창단은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주일 오후 2~5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연습을 한다.

문의: 010-2561-8633

키즈뮤지컬찬양팀 단원 모집

키즈뮤지컬찬양팀에서 단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다. 참가신청은 2017년 1월 1일까지 차세대 각 부서 담당전도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이지은 코치(010-3775-1797)에게 받으면 된다. 오디션 일정은 개별공지 해준다. 연습은 매주 토일 오전 10시부터 양재 온누리교회 비전홀A에서 한다.

네팔 해외봉사단원 모집

NGO 더멋진세상, 지역개발 및 행정지원

NGO 더멋진세상에서 12월 27일까지 네팔 해외봉사단원을 모집한다. 선발되면 네팔 고레다라 마을에서 지역개발 및 행정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파견 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다. 왕복항공료, 생활비, 주거비용 등을 지원한다.

1년 이상 해외봉사활동이 가능한 19세 이상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서류를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에서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메일: ojm@abetterworld.or.kr

문의: 02-2271-2246

/ 김영선 기자

찬양사역자 밥피츠 초청예배

1월 22일 인천 온누리교회

세계적인 찬양사역자 밥 피츠(Bob Fitts)가 인천 온누리교회를 방문한다. 1월 22일 인천 온누리교회 2부(11시 30분)와 3부(14시) 예배에서 찬양사역자 밥 피츠(Bob Fitts)를 만나볼 수 있다.

세계적인 찬양사역자 밥 피츠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He will come and save you', 'Roman 16:19' 등의 찬양을 불렀다.

12월 서빙고 세례자

■서빙고
권주용 820308
김명옥 590805
김민희 910206
김형자 430222
명지혜 850703
백남숙 530826
오시윤 870616
유선경 840206
이대한 861123
이외순 520401
이주희 781226
장상열 550708
최수이 690115
최혜란 921105
최황지 911008

유아
김성윤 150503
김강유 김한나
김세연 141231
김상현 김경내
김소희 160616
김기석 김민정
김신희 150107
김기석 김민정
김이룸 160104
김진규 유혜식
박민하 150528
박세영 장종윤
박연후 150411
박형욱 이수희
신지안 160104
신상오 김문선

■열린새신자 예배
강나율 860608
류경은 820604
변상준 800125
변지원 811125
정문이 911115
최진호 850301
허보람 870119

유아
이리에 160708
이종현 서지현
정수아 151216
정녹영 이나실
조 단 151015
조성욱 신정은

〈대학청년〉

■갈렙
입교
변우정 890329

■길
윤순홍 870508

■SNS
이나영 880711
오영주 791029

입교
김연중 841005
조성원 890918

20161225-1129-_2012528 -90216 16. 12. 23. 9:47 Page 12

▌내적치유학교 수료 간증

나는 널 포기하지 않는다

/ 주사랑(가명)

나는 36살이다. 아직 미혼이고 뚜렷한 직장도 없다. 우울증을 앓았던 병력을 숨기느라 전전긍긍할 때도 많다. 가족,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받은 열패감이 자신감을 잃게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다. "내가 너의 친구다"라며 용기를 주시던 음성도 내 안에서 사라져갔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심장이 조여왔다. 숨조차 쉴 수 없는 공포감이 엄습해올 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친구가 '내적치유학교'에 입학할 것을 권유했다. 첫날, 강의실 의자에 앉자마자 들리는 찬양소리와 따뜻함에 울컥했다.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다. 강의를 들으면서 해결되지 않고, 이유도 몰라서 붙잡고만 있었던 인생의 문제들을 인지하고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회복되는 것을 미루고 두려워했던 나를 발견했다. 하나님께서는 돌처럼 굳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 그런데 희망의 서광이 비출수록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버티고 나가질 않았다. 나를 학대했던 가해자들과 그 앞에서 무기력했던 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켜켜이 쌓여 있던 분노가 올라왔다. 용서가 되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 와 있는데?"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 순간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솔직하게 기도드렸다.

"사실 주님의 음성이 그립습니다. 난 주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곳에서 나를 만나 주세요."

십자가 의식과 기도시간은 성령님의 놀라운 만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도 나처럼 외로우셨구나,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셨구나, 나의 더러운 죄와 아픈 상처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셨던 거구나."

그때 그렇게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널 혼자 버려둔 적이 없다. 너를 기억하고 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나는 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랑 다시 시작하자."

주님의 사랑에 의심과 불안이 무장해제 되었다. 주님에 대한 삐뚤어진 마음과 오해를 풀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정체성을 되찾았다. 죄와 상처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세네갈에서 온 어린이 무상 수술 후기



미약한 나의 손을 통해서

/ 이백권 집사(강남C공동체)

성형외과 의사인 나는 여름 방학 기간에 쉬지 말고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내 아웃리치만 갈 수 있다고 여겨왔다. 그런 내가 지난 8월 아프리카 세네갈로 첫 번째 해외 아웃리치이자 의료선교를 다녀왔다.

세네갈 의료사역 1개월 전 현지 선교사님께 '만쟈라 쟈이'라는 아이의 수술을 해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다. 만쟈라 쟈이는 '선천성 양측성 두안면열'을 앓고 있었다. 그 아이의 사진을 본 순간 말문이 턱 막혔다. 교과서에도 없는 사례였고, 조금 부담스러운 상태였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네갈 의료사역 기간에 성형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세네갈 의료진의 비협조로 그 아이의 수술을 할 수 없었다.

일상을 보내고 있던 9월 중순, 세네갈 선교사님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만쟈라 쟈이가 한국에 가면 무상으로 수술을 해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나는 흔쾌히 허락했다. 그리고 초청을 준비했다. 경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왕복 항공권이었다. 이 비용을 한국인 선교사님이 부담하려고 했는데 만쟈라 쟈이의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과 직원들의 도움으로 항공권이 준비되었다. 아무리 약하고 아픈 어린 양 한마리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미약한 나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기도를 드렸다.

마침내 지난 2일 만쟈라 쟈이에게 수술을 해주었다. 4시간에 걸친 1차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만쟈라 쟈이는 이번 달 30일이면 한국을 떠난다. 새해를 고향에서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세네갈 선교사님도 지난 4년 동안 만쟈라 쟈이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만쟈라 쟈이는 수술을 받은 날 저녁부터 인사도 하고, 묻는 말에 대답도 잘했다. 모든 일과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계획에 없던 올 여름 세네갈 아웃리치를 아내와 딸을 통해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딸 만쟈라 쟈이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은혜다. 만쟈라 쟈이와 어머니를 한국에 오게 해서 치료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할 수 있어 감사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만쟈라 쟈이가 복음을 접해서 세네갈에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기도한다.

▌대청 사랑愛나눔 참가간증



따뜻한 봄날 같았다

/ 김예랑 형제(SNS공동체)

처음 대학청년부 사랑愛나눔 공지를 봤을 때 참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특별한 마음이 들지 않았고, 일정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랐다. 하나님은 이 시대 청년들을 통해 사랑과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싶어 하셨다.

봉사 당일, 내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나는 배우를 준비하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문제는 나의 마음이었다.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오늘 하루만큼은 나에게 집중된 마음과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을 나누는데 온전히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날씨는 상당히 추웠지만 어르신들께 드릴 물품을 포장하고 옮기면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기쁨과 설렘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물품들이 조금 무겁긴 했지만 내 마음은 가벼웠다. 어르신들의 댁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할머니가 떠올랐다. 자식들 뒷바라지 다 하시고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 친할머니도 오랜 시간 혼자 지내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해졌다. 또한 어르신들이 지나온 세월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랜 세월을 관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어르신들을 만났던 순간만큼은 따뜻한 봄 같았다. 하나님이 나와 공동체 지체들을 그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사랑을 나누는 것을 온전히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나눔과 섬김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나눔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 감사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대단하고 뭔가를 나눌만한 사람이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미약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사랑愛나눔을 통해서 내가 받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셨다.

▌18기 치유사역자스쿨 수료 간증



100% 고치시는 하나님

/ 배은희 성도(브릿지33공동체)

26살 때 눈병을 심하게 앓았다. 그 후유증으로 오른쪽 각막이 약해졌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좋아질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년 남짓 오른쪽 각막이 약한 상태로 지냈다. 치유사역자스쿨에 와서도 각막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사실 나는 만성적인 장염을 고치고자 치유사역자스쿨에 등록했다. 심한 장염 때문에 여행을 갈 때마다 항생제를 챙겨가야 했다. 장염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각막을 놓고 먼저 기도하라며 기도제목을 바꿔주셨다.

"하나님, 저는 지금 장염 낫는 것이 더 급해요. 화장실만 덜 가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밑져야 본전이다 싶어 안경을 벗고 오른쪽 눈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런데 까만 덩어리가 보이는 듯싶더니 부드럽고 따스한 빛이 비추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데 이물감이 절반 정도 사라졌다. 절반만 좋아져도 살 것 같았다.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하는데 전보다 더 편해졌다. 80% 정도 나은 것 같았다. 이만해도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치유사역자스쿨 마지막 주 월요어노인팅 집회에 갔는데 장로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20%를 남기시는 분이 아니며 완전하게 고치신다"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셨다. 나에게는 100%의 믿음이 없는데 장로님께서는 100%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니 부담스러웠지만 그럼에도 기도했다. 며칠 뒤 목요일 오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각막이 깨끗하고 아팠던 흔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제는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들었다. 아무리 좋아져도 심하게 앓은 눈병 흔적은 남는다고 한다. 그런데 내 각막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정말 모두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치유사역자스쿨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은 병주시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과 100%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신실하게 섬겨주신 월요어노인팅예배 사역자님들과 장로님께도 감사하다.

20161225-1129-_2012528 -90216 16. 12. 23. 9:47 Page 13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허락된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심은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공의, 둘째 정직, 셋째 신실함입니다. 공의, 정직, 신실함은 한마디로 절대적 공정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이 있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치우칠 가능성이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정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적 공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줍니다. 약한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정직한 결정, 공의로운 판결이 바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통치입니다.

"그 입의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 띠를 삼을 것이다"(5절).

세상의 통치자의 띠는 부귀와 영화와 권력입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신실함의 띠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인간의 리더십은 완벽한 공의와 정직과 신실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왕조가 몰락한 이유도 다윗이 번영과 평안 가운데 이러한 성품들을 점차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인간적인 통치와 완전히 구별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이들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도 부분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뤄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제쳐놓으면 안 됩니다. 부분적이고 온전하지는 않지만 나타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이뤄지는 세상의 놀라운 변화를 예고합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단지 사람들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온 우주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6~8절).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피조세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이루는 것은 우주적인 구속입니다. 모든 적대관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악이 이성적인 피조세계에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이성적인 동물의 세계에서도 적대감이 사라집니다. 위험하고, 두렵고, 공포를 가져다주는 모든 적대관계가 사라지는 완전한 샬롬, 평화의 관계가 이뤄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완전한 샬롬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세계 사이에서의 평화도 이뤄질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양육강식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의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창 1:29~30).

타락 이전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주어진 양식은 풀이었습니다. 채식이었습니다. 언제 육식이 들어왔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허용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주셨다고 볼 수도 있고, 환경에 적응을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양육강식의 모습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은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샬롬,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한 싹이 이루는 놀라운 일이 예비 되어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사 11:9~10).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왜 그런 샬롬의 세상이 찾아오게 됩니까. 물이 바다를 충만히 덮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평화가 이뤄집니다.

이새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입니다. 나라들이 그를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 이전에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보고 민족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살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이뤄진 것입니다.

무너진 다윗왕조의 그루터기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의 깃발이 되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민족의 깃발이 되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민족이 그분에게로 몰려올 것입니다. 이슬람의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에 기독교 대학이 세워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핍박하고 있던 중국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핍박이 있지만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민족들의 깃발이 되십니다. 핍박이 있는 곳에서는 깃발이 보이는데 핍박이 없는 곳에서는 깃발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깃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사깃발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깃발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영을 받고, 세상에서 일하면 이 세상이 주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뤄질 것입니다. 바로 이 성탄을 놀라움과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고

원판보존의 원리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이 시기 학원가는 신입생 모집이 한창이다. 부모들은 학원 쇼핑을 다니며 한숨을 내쉰다.

"지금 다니는 학원에 눌러 앉아? 아니면 갈아타?"

더 많은 학원설명회에 참석할수록 혼동이 더해진다. 옆집 아주머니의 말을 들을수록, 내 아이만 더딘 것 같아 초조해진다.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고 붙잡을 것이 꽤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그만큼 유혹이 많다. 우리나라 사교육 현장은 부모들의 영적 도전의 터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교육상품 유통자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학업원리 하나를 나누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원판보존의 원리'이다. 이 아이를 보자. 자존감이 건강하다. 자신과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아이다. 이 아이가 기초만 부실하지 않다면 고등학교 때부터 치고 오르는 일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비일비재하다. 내용물이 손상되지 않게 잘 풀어야 하는 선물처럼 이 아이도 지으심 받은 대로 풀어냄이 중요하다. 아이가 느리게 가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빨리 간다. 무능한 것 같지만 유능해진다.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내 아이의 원판을 보존하는 구체적 방법 중 하나가 때를 뛰어넘지 않는 것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학원을 운영 중인 동료가 이렇게 하소연했다.

"착석의 기본은 뛰어넘고 인수분해부터 하려고 하고 있어. 20분을 앉아 있지 못하는 애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 결국 강사는 아이에게 수업 중에 앉아있으라고 잔소리하고, 아이는 공부에 질리고, 부모는 아이한테 점수 낮다고 화내고, 게다가 우리 학원이 아이의 학습동기를 죽였다고 소문내고 악순환이야!"

공부 이전에 마쳤어야 할 착석 훈련의 때를 뛰어 넘은 결과이다. 다음은 연예인 김지선씨의 고백이다.

"O방송의 '영재OO단'을 통해 OOO학생을 알게 됐어요. OOO 선생님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 중의 천재라고 극찬한 아이예요. 얼마 전에 그 아이를 만나서 요즘 어떠냐고 물으니 "죽고 싶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방송 나간 후로 놀 시간이 없고 매일 OO, OO를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하도 스파르타식으로 하니 애가 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슬퍼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이가 잠시 쉬어야 할 때를 뛰어 넘은 결과다. 성경에서도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전도서 3:1).

우리는 자꾸 아이의 때를 뛰어넘으려고 한다. 여기서부터 원판에 균열이 시작된다. 부모의 시선이 주를 향할 때 아이를 향한 정확한 때가 보인다. 옆집 아이만 보지 말기를 원한다. 초조해질 뿐이다. 내 아이만 보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독이 나온다. 학원설명회를 너무 많이 다니지 말기를 권한다. 내 아이가 보이지 않게 된다. 자녀학업으로 마음이 복잡한 12월, 잠시 숨을 고르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여호와여, 주의 뜻을 나에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시 25:4).



유 하워드(도곡 온누리교회 영아부 교사, 〈잘 풀리는 자녀의 비밀〉 저자)

1129호 20161225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6. 12. 23. 오후 9:48 페이지 1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 손정훈 목사
시간 :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예꿈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셔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세라 선교사(010-4029-7601)

국악찬양팀 팀원 모집
분야: 사물놀이 등 타악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
모임: 매주 목 오후 7시~9시 반(서빙고)
문의: 010-6281-9121

금요회복예배 싱어(여) 모집
자격: 온누리교인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6:00 ~ 9:00
문의: 이문정 총무(010-9767-3319)

목요선교집회 싱어모집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5:30 ~ 9:00
문의: 이승윤 전도사(010-2701-5309)

안산 온누리M센터 봉사자 모집
시간: 1월 7일 오후 3~7시
모집: 기타, 탁구 강사 및 스태프
대상: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문의: 031-491-9650, 010-2724-4563
*어쿠스틱 기타와 탁구용품 등 후원 모집

TIM(두란노해외선교회) 간사 모집
자격: 구원의 확신 및 선교에 헌신된 자
한글/오피스등 문서작업 가능자
1종 보통면허소지 및 운전가능자
문의: 02-794-1063, smt4810@gmail.com
*자세한 사항은 www.tim.or.kr 채용공고 참조

CMN라파팀 외국인진료 봉사자 모집
서빙고: 셋째 주일 오후 4시~6시(간호사)
안산M센터: 셋째 주일 오후 2시~5시(내과의사, 간호사)
문의: 심형섭 팀장(010-3227-9915)

KIBI(한이성경연구소) 간사 채용
업무: 선교단체 행정 및 기획, 총무 인사 제반업무, 해외 문화행사 기획 및 행정 지원 업무기도모임 준비 및 세미나 행정 지원
문의: 신나영 실장(010-2772-5058)

양 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 (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 (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묵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묵상의집
*셔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복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 샬롬기도회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비전홀A
문의: 김두진 총무(010-6298-6318)

일대일 양육자반 김철주 장로반
개강: 1월 8일 주일 오전 11:30(16주)
장소: 이스라엘홀
일대일 양육자반 김명현 장로반
개강: 2월 5일 주일 오후 2:00(16주)
장소: 이스라엘홀
대상: 세례등록교인, 동반자과정을 수료한 자, 반드시 순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신청: 아이스쿨
문의: 02-570-7349

공사랑 축구선교팀 회원모집
비전: 축구를 통한 선교
문의: 오명석 총무 010-6470-7131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 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 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 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 네팔) 매주 토 오후 7:0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온누리워십 수 오후 7:30 본당
How Mission 목 오후 7:30 비전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주일국제예배
몽골어 예배 11:30 드림홀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쉘터

인 천
032.437.9686

주일예배
인천 글로벌캠퍼스(IGC) 운영재단 B1층
성인 1부 오전 9시 / 성인 2부 오전 11시 30분 / 성인 3부 오후 2시
차세대 (영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영어예배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6층
중등부 오전 11시/고등부 오전 9시/대학청년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3층
사랑부 오전 11시 / 몽골어예배 오후 1시
주중예배 – 프리스페이스 6층
새벽기도회(월-토) 5:2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오후 7:40

강 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11:00 / 3층 주선애홀 (영상중계)
예수님의 꿈아이(유아,유치)/ 11:00/지하1층 무어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자라는땅(초등) / 11:00 / 지하1층 킬보른홀
파워웨이브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수요선교예배 / 19:20 / 1층 시안홀

1129호 20161225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6. 12. 23. 오후 9:49 페이지 2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박형준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굿모닝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471-85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염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권혁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이훈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7 Tarn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롱경**
  문봉주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542-0083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Nagano-ken Ueda-shi Oaza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서현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김철희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하토리 타케시 전도사 81-75-748-9303
  Saiin Pram Bld 6F, Sanjocho 14, Saiin Wookyoku, kyoto japan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2-665-7754
  opposit embassy of Viet Nam, 23rd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김영철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김대진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53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ō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장춘**
  박시형 목사 86-131-7900-0752
  中国 吉林省 长春市 南关区 永长路 213号 onnuri.
  zhongguo jilinsheng changchunshi nanguanqu yongchanglu 213hao onnuri.
- **청도**
  최승구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박형준 신기섭
박태영 안광국 김종민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일영 강일하 권오향
권용갑 김경훈 김관수 김도균
김도윤 김상수 김성욱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진 김영창 김요성 김윤식
김재석 김정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렴문홍
마이크리 문영재 박대원 박성A
박성B 박P무엘 박성천 박세웅
박승훈 박윤헌 박철웅 석승호
성중원 손신국 손정훈 송영동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차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우윤상 원유경 유수열 유영순
윤경숙 윤길중 윤석원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탁 이동훈
이민욱 이사엘 이상진 이서진
이성민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임항재 장대[illegible]
전신익 전재표 전홍천 정상훈
정성훈 정웅규 정재륜 정재욱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권 최성민 최성석
최영민 최용준 최혁중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Philip Arndt

◈전도사(전임)
김용민 김재승 김종호 박승훈
배행삼 변대섭 송석근 유승현
이강현 이종현 정한효 한영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이기복

◈협력목사
김도일 이기복

◈부목사(파트)
강은혜 곽상학 김기범 김지애
김종영 김창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바랏라일리 백영미 손 숙
[illegible] 안희진 유혜[illegible] 유승덕
윤용국 임선아 최봉오 차[illegible]미
[illegible] Enoch Kwaku Hanokh

◈전도사(파트)
강병천 강지영 강한성 [illegible]
고인호 권효정 기호진 길혜영
김기태 김대운 김덕기 김민석
김민수 김선재 김세현 김소리
김승관 김영신 김요한 김용석
김은영 김은하 김진석 김진아
김진아 김진하 김찬숙 김태환
김형중 김혜경 김희연 나지혜
문장원 민경윤 박광규 박근명
박근범 박상명 박양원 박은미
박은자 박이호 박종익 박지예
박지원 방세미 배순양 백영미
서종욱 서 철 서수민 서영희
송지은 신경훈 신대근 신중건
신하선 신현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양은주 양진범 오스라
오준현 유 경 유진아 윤상복
윤수신 윤정노 윤준석 윤치연
윤현규 윤형림 이경선 이다솔
이덕주 이미령 이선영 이승윤
이양권 이완희 이용기 이우람
이원준 이은경A 이은미 이은희
이재석 이정도 이종민 이준인
이지원 이진이 이창우 이풍주
이현대 이현석 임경헌 임요한
임정남 임지훈 임효섭 장동원
장유미 장재원 장춘혜 전가영
정구현 정만희 정에스더 정영광
정영희 정지혜 정지환 정진만
정진아 조묘구 조상훈 조성광
조성환 천정우 최규종 최대흥
최성규 최성필 최우윤 최재호
최정현 최현웅 [illegible] 하청훈
한대우 허륜호 허영은 홍세나
홍세녹 홍순영
Lkhagvasuren Gan-Otgon

◈사역장로
강인지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광선
김남열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순 김수광 김수웅
김수역 김영길 김원경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용성 김용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주현 김진국
김철수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류지영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용국 박영태 박찬빈 배종수
백승웅 백호현 서진봉 서창희
서찬교 성창섭 송만석 송일섭
송유신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우권 안국영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완영
유재천 윤성열 윤영오 윤지준
이강범 이건재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윤대 이재준
이종순 이창남 임광택 장양희
정강무 정돈영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윤재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향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최선수 최 병 최창규 최충길
최희영 피터웰디 하영철 하용기
한종대 한형식 함선호 홍기명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기석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영중 강의선 강찬석 강철호
고 건 고다이라 고영주 곽진성
권득한 권영석 권오습 권오혁
권용성 권용한 김 완 김 웅
김 원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기영 김기호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종 김명현 김명훈 김민호
김병순 김병옥 김상섭 김상인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묵
김성종 김성진 김승열 김연상
김영수 김영옥 김영한 김영환
김용기 김용호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욱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하중 김해기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상권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정진 노기홍 노흥규
류기범 명영찬 문성기 문영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규현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수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종현
박지수 박태성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백남인 백흥기
배 문 배기영 서경석 서성렬
상병선 서병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손한기 송동섭 송영범
송영태 송종환 신무환 신민호
신영각 신학철 신헌승 신현길
신현종 실길섭 신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심희돈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상식 양유식 양주현 양춘경
양충식 오상록 오성훈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 형 유병진
유병훈 유윤하 유의준 유재홍
육동건 윤기홍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현덕 윤형주 이 철
이경찬 이경훈 이관수 이광순
이광형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희
이백용 이봉의 이상기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수곤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호 이정구 이정근 이종우
이태열 이태환 이한열 이해달
이헌규 이현조 이홍선 이화영
이희주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정열 이종길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 광 장경문 장정식
장광열 장규환 장선철 장형준
전구영 전영수 전장하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병균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판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성현 조성환 조정구 조희동
주재량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민철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주관 최진성
최창수 최한우 최현재 편무욱
하성기 한갑수 한규종 한덕송
한백진 한양희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함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필우
허형석 홍덕표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종철 홍해남
황병원 황영옥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마흥규 문태준 박동순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륜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권준길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illegible]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임윤규 전태경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세일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서동희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이미선 이민호 이신영 이수정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미라
조익현 조정훈 전병곤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훈희 홍용식
홍정표

◈반주자
김기아 김병성 김선경 김성규
김수현 김순길 김연아 김은경
김은섭 김은실 김은영 김인영
김주나 김지영 김지희 금민희
남궁진 노성희 박선희 박 숙
박영숙 박진용 방 휘 석지혜
이혜지 안은경 안은영 양지연
양현석 우경진 유재경 윤지영
윤정희 윤현진 이강석 이나래
이예지 정경미 정다혜 조영혜
조한나 최은미 최희정 한은미
황보승 배원신 강영은 황대준
허윤선

해외 온누리교회

◈OMA담임목사
김형철 박재영 이정엽 이중재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혁빈 금경연
김대진 김시연 김영철 김철진
김철희 김태완 박재영 [illegible]
마크최 문봉주 박만규 박시형
심상현 서재범 서 현 유현목
이성권 이영선 이한규 이 훈
정장철 최승구 [illegible]

◈부목사
강일하 곽성환 권희경 금동섭
김미정 김인숙 김시연 김재형
김태환 노경호 문성일 박근택
박신웅 박수환 박주영 박택근
방진남 백인호 서성광 여필종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성영
이세영 이일표 이재웅 이지훈
이종실 이한성 전상현 전현규
전홍렬 정동윤 정용환 정호석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영진
최정무 허 민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James Park joseph Chu Joe Lee
Lee Yi Sam An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남명호
노용진 도승희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최승준
최정혜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전도사
강성근 강찬호 강창환 [illegible]
김산성 김성민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우신 김정옥 김지현
김지완 김현경 구혜선 노경호
[illegible] 마커스 마커스 문하나 민성민
박우람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현열 박현욱 배윤희
백도훈 백일승 샘 리 서민표
서재욱 설산정 손미경 손주은
송준헌 신기원 안지현 양달샘
연공주 윤경선 이복음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재경 이지나
이현우 윤성민 장세윤 장제홍
지자영 전희동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승철 조 단 최성배
최은정 최정수 최진숙 [illegible]
하보라 하토리 타케시 핸슨오 홍가람
Christine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Tommie Njobvu

◈장로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재동
백 학 손진성 신중수 이덕한
이상덕 이만영 이문호 장우진
정길안 조록형 조성민 허규회
홍규석

◈명예장로
김용석

◈협동장로
강광일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연수 정두호 정석환 최승호
윤한돈 이재원 임헌식 최태영
김종수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남명호
노용진 도승희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최승준
최정혜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광고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채용
모집: 양지 영선 직원, 양지 전기 직원, 서빙고 온누리플라워 플로리스트, 서빙고 커피숍 직원 (입사일로부터 1년단위 계약갱신)
자격: 세례교인, 경력무관(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인근거주자 우대,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접수: bible81@onnuri.org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문의: 총무팀(02-3215-3102)
*자세한 사항은 '갓피플' 공고 참조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문창극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미림, 김영선, 이소정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학습 자원봉사자 및 후원품 모집
검정고시(수학,과학,윤리,국사) 및 악기(통기타) 후원
문의: 임재금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문의: 이주현 과장(070-4489-6889)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기계목욕 및 안내 자원봉사자 모집
시간: 기계목욕(화요일 10:00~12:00), 안내(시간협의)
문의: 이지희 사회복지사(3407-2747)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노후설계교육 '펫시터 양성과정' 모집
내용: 동물 습성, 응급조치 등 애완동물시터 교육
대상: 만 55세 이상 어르신 중 반려동물 사육 유경험자, 펫시터 구직 희망자
참여: 복지관 3층, 20명(선착순), 수강료 20,000원
문의: 박담비 사회복지사(02-796-7665)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내용: 식자재 다듬기, 배식, 설거지
시간: 매주 화, 수, 목 9:30~14:30(식사시간 포함)
혜택: 의욕증진 나들이, VMS 봉사시간
문의: 차혜민 사회복지사(070-4340-2599)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이영환 팀장(985-3609)

재 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모든 상담 사전예약 필수)
(화~금: 오전10:00~오후5:00, 토~일: 오전10:30~오후3:00)
면접상담 신앙,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상담, 미술치료
전화상담 위기시에만 제공
심리검사 MMPI-2, MBTI, 종합심리검사, 에니어그램, U&I 학습, 진로탐색검사
특수상담 세무상담: 첫째 주일 오전 10:30~12:00
정신과,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암환자 상담: 주일 오후 3:00 이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수요일 오후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

12/17(토) 강촌 장미경 집사 부친상, 김지현 장로 빙부상 고 장규섭
12/17(토) 하모니 김정열 집사 부친상 고 김동환
12/17(토) 서초A 최수진 성도 시모상 고 신용옥
12/17(토) 강남B 허영숙 집사
12/17(토) 과천의왕 안기춘 성도 빙부상 고 박희갑
12/19(월) 특별한초대 양종숙 부친상 고 양재곤
12/19(월) 노원 최경희 집사 모친상 고 김순자
12/21(수) 중종로 이영숙 권사 부친상 고 이종철
12/21(수) 중종로 이정숙 집사 모친상 고 김정녀
12/21(수) 강남D 윤원재 성도 모친상 고 권인택
12/22(목) 안양평촌 김성윤 선교사 빙부상 고 임만지

1129호 20161225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6. 12. 23. 오후 9:49 페이지 3

다 큐 영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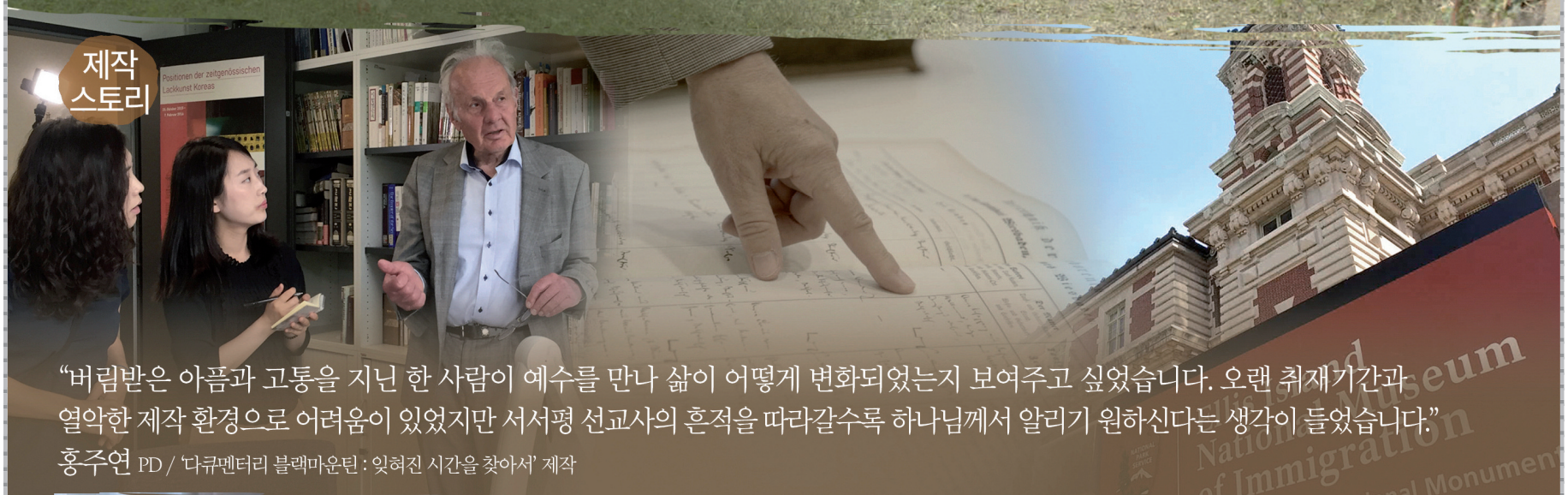
서서평 徐舒平

천천히 평온하게

감상평

"성탄은 지상 최고의 낮아짐의 사건이고, 겸손의 사건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서도 동시에 낮아짐의 결단이 없으면
진정한 성탄이 아닙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그런 예수님을 가장 닮은 분입니다.
다큐영화 서서평은 흥미를 위해서가 아닌 영적 도전이 되는 작품입니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제작 스토리



"버림받은 아픔과 고통을 지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랜 촬재기간과
열악한 제작 환경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서평 선교사의 흔적을 따라갈수록 하나님께서 알리기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주연 PD /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 : 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제작



"서서평 역의 안나가 설교하는 모습을 촬영할 때 마치 서서평 선교사가 살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섭외와 촬영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현정 PD /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QT' 제작

2017년 봄, 영화관 상영과 더불어 순회 상영을 통해 한국교회와 나눕니다.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처럼 살았던 서평은 잊혀졌지만,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은 한국 기독교를 이끄는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고 이 시대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